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이: 톡&Talk

‘악바리’ 이용규·김주찬에게 야구란? …“지고싶지 않은 놀이”

2009년 4월 7일. 개막 후 3번째 경기에서 KIA 이용규가 외야에 쓰러졌다.

공을 잡으러 펜스로 뛰어들었던 이용규가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독기로 야구를 하는 이용규가 한참을 누워있는 것을 보고 큰 일이다 싶었다. 결과는 ‘복사뼈 골절, 6주 이상 재활’.

뼈가 부러졌는데 그날 이용규는 자기 발로 걸어나왔다. 처음에는 트레이너의 등에 업혀있었지만 이내 이를 마다하고 걸어서 덕아웃으로 향했다.

이용규는 “나를 너무 못 업어서 내려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용규는 아마도 수많은 팬들과 적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팀이 유난히 비를 피해다녔던 이 해 이용규는 한 경기라도 더 뛰고 싶어서 마음으로 기우제를 지내고 또 지내며 독하게 재활을 했다.

집요하게 공 20개를 커트해낸 팀의 톱타자, 헬멧이 부서져도 손가락을 베이스에서 떼지 않던 국가대표.

친한 동료에겐 빈틈 있는 보통 사람이지만 굶주린 야수처럼 늘 강렬한 눈빛으로 그라운드와 덕아웃을 서성거린다. 경기장에서 딱 한번 선수 이용규가 아닌 동생 이용규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부상을 당하던 날, 경기가 끝나고 목발 신세의 이용규와 마주쳤다. 씩씩한 척은 했지만 “수술 잘 받고 오라”는 위로에 이용규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천하의 악바리가 아닌 고된 하루에 지친 여린 동생이 앞에 있었다. 물론 그날 이후 이용규의 보통 표정은 본적이 없다.

2012년 4월 3일. 개막 후 4번째 경기에서 KIA 김주찬이 타석에 쓰러졌다.

“참을 수 있는 정도면 뛰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고 실제 그래왔던 김주찬이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김주찬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다. 그리고 김주찬이기에 도루를 했다. 1루로 걸어나간 김주찬은 망설임 없이 2루로 달려들었고, 이범호의 안타가 나오자 홈까지 질주를 했다. 수비를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던 김주찬은 ‘왼손목 골절, 6주 이상 재활’ 진단을 받았다.

팀 타선에 불을 붙이며 강렬한 신고식을 치른 신입 호랑이 김주찬은 그렇게 강렬하게 자리를 비웠다. 김주찬은 손가락, 손목, 코뼈 골절 등 부상일지가 유난한 선수다. 그래도 이내 경기장으로 돌아와 다시 거침없이 공을 향해, 베이스를 향해 달려들던 악바리다. 이번에는 바로 경기장에 돌아오질 못했지만 왜 김주찬인지를 보여줬다.

그라운드에서만큼은 자신이 최고라 생각하고 또 최고로 보이고 싶어하는 이용규와 김주찬. 그만큼 최고의 플레이에 도전하는 두 선수는 2009년과 2013년 비슷하게 그라운드를 비웠다.

이용규

김주찬

“김주찬에게 야구란?”이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잠시 망설이던 김주찬은 “야구는 내 인생이자 놀이”라고 답을 했다. 이 봄이 다 가기전에 건강하게 놀이터로 돌아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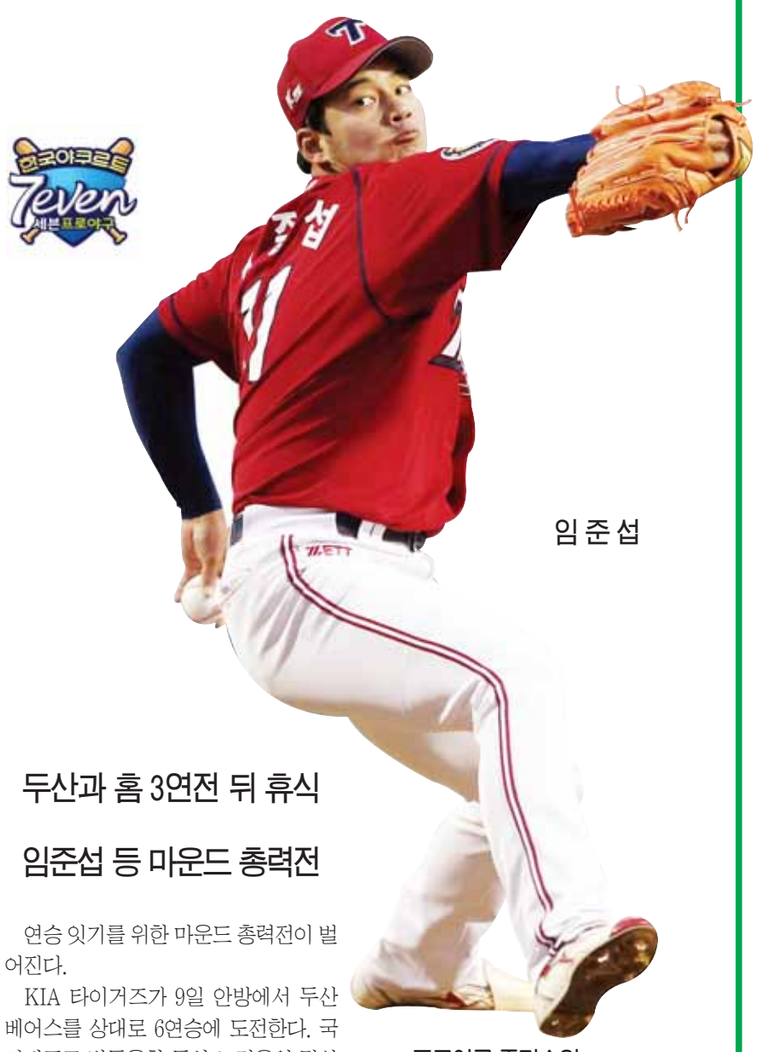
참, 예상치 못한 부상의 습격을 받은 KIA의 2009시즌은 어땠을까? 3루수로 변신했던 이종범은 이용규가 빠지자 다시 외야로 갔다. 그리고 고졸 신인 안치홍이 3루수로 투입됐다. 안치홍은 다음날 개막 4경기 만에 2번 타자겸 3루수로 첫 선발출전해 3안타 2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이해 가을에는 역대 최연소 한국시리즈 홈런 주인공으로 V10의 중심에 섰다.

프로야구는 이런 것이다. 위기에서 또 다른 희망이 피어나는, 끝나는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변수 많은 스포츠.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폭주기관차 KIA 쉼없는 연승행진


임준섭

두산과 홈 3연전 뒤 휴식
임준섭 등 마운드 총력전

연승 잇기를 위한 마운드 총력전이 벌어진다.

KIA 타이거즈가 9일 안방에서 두산 베어스를 상대로 6연승에 도전한다. 국가대표로 발돋움한 두산 노경은의 맞상대로 좌완 임준섭이 낙점됐다.

로테이션상으로는 양현종이 등판할 차례지만 우천으로 한 경기를 쉬었던 지난 주말 양현종은 불펜으로 대기했었다. 대신 임준섭이 선발로 출격하고 양현종은 그대로 불펜의 필승조로 잠시 자리를 옮긴다. 선발진의 변칙 운영이다. 이번 주 KIA의 주말 일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이다.

KIA는 두산과의 주중 홈 3연전을 치른 뒤 주말 휴식에 들어간다. 9구단 체제로 출범한 올 시즌은 홀수팀 체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팀이 경기를 쉬어간다. 이번 주말 3연전이 KIA의 순서다.

12·13·14일에 이어 월요일 휴식일까지 4일의 여유가 생기면서 KIA는 난적 두산과의 승부에서 마운드 총력전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앤서니의 마무리 변신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발진의 필승조 투입까지 가능한 유리한 일정이다.

첫 프로 선발전에서 승리투수가 된 임준섭의 배짱투와 함께 타선의 고공행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KIA는 앞선 한화·롯데와의 5경기에서 45점을 뽑아내는 폭발력을 과시했다. 팀타율은 0.306에 이르는 등 홈런을 제외한 주요 타격 부분의 1위 자리를 KIA가 독차지했다.

김주찬의 부상 공백에서는 신종길이 깜짝 활약을 해줬고, 9번 자리에서 사실상의 테이블 세터 역할을 해준 김선빈도 0.37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중심 타선에서는 최희섭의 조용한 활약이 눈에 띈다. 올 시즌 KIA 붙박이 5번을 자처한 최희섭은 김용달 타격코치가 가장 기대를 한 타선의 핵. 지난 7일 3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팀 5연승을 이끈 나지완도 4번 타자로서의 무게감을 더해가고 있다.

이용규와 안치홍까지 타격쇼에 가세한다면 타선의 상승세도 계속될 전망이다.

0.214의 타율에 머물고 있는 톱타자 이용규는 7일 경기에서는 한 차례도 베이스를 밟지 못했다. 6번 타자로 공격을 이어 가야하는 안치홍의 타율도 0.179에 그치고 있다.

KIA는 연승과 함께 기록 도전에도 나선다. 홈런포가 4번 더 가동되면 KIA는 두 번째로 3200홈런을 채우는 팀이 된다. 1만6000타점에도 15개가 부족하다. 최근 5경기에서 평균 득점 9점에 빛나는 폭발력이 이번 주에도 발휘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기동력의 기록도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 10개의 도루를 추가하면 KIA는 처음으로 3800 도루를 장식한 팀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중간순위 (4월 8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연속
1	KIA	7	6	1	0	0.857	5승
2	롯데	7	5	2	0	0.714	2패
2	넥센	7	5	2	0	0.714	3승
4	두산	7	4	3	0	0.571	1승
4	LG	7	4	3	0	0.571	1패
6	삼성	4	2	2	0	0.500	2승
7	SK	5	2	3	0	0.400	2승
8	NC	5	0	5	0	0.000	5패
8	한화	7	0	7	0	0.000	7패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8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2013 메이저리그 홈경기에 선발출장해 역투하고 있다. 류현진은 이날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두 경기만에 첫 승리를 올렸다. /연합뉴스

한국인 투수 1427일만에 선발승

류현진, 피츠버그전 6.1이닝 2실점 6K ML첫 승
매팅리 감독 “홈런에 무너질 선수 아니다” 극찬

‘괴물투수’ 류현진(26·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미국프로야구 두 번째 선발 등판만에 첫 승리를 따내고 한동안 끊긴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 승리 계보를 다시 이었다. 이에 따라 다저스 선발진내 그의 입지도 더욱 탄탄해질 전망이다.

류현진은 8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치러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의 홈경기에서 6.1이닝동안 삼진 6개를 곁들여 3안타에 볼넷 2개만 내주고 2실점했다.

4-2로 리드한 상황에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내려온 류현진은 불펜투수들의 무실점 투구와 저스틴 셀러스의 쐐기 홈런속에 다저스가 6-2로 승리하면서 기분 좋은 메이저리그 첫승을 챙겼다. 이로써 류현진은 선발등판 2경기 만에 시즌 첫승을 신고하며 1승1패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2.13. 지난 3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6.1이닝 동안 3실점(1자책))에 이어 두 경기연속 퀄리티 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 행진이다.

류현진이 두 번째 선발 등판만에 첫 승리를 따내고 한동안 끊긴 메이저리그 한국인 투수 승리계보를 다시 이었다. 역대 한국인 투수로는 9번째로 승리를 수확한 류현진은 2010년 박찬호(은퇴) 이후 2년 6개월 만에 한국인 투수로 승리를 따냈다. 또 역대 한국인 투수 246승째를 장식했다.

빅리그에서 첫 승리를 선발승으로 수확한 한국인 투수는 조진호(당시 보스턴), 서재응(뉴욕 메츠·현 KIA), 류현진 등 세 명뿐이다. 나머지 6명은 구원승으로 마수걸이 승리를 신고했다.

류현진은 경기초반 공이 높게 형성되면서 안타에 이어 메이저리그 데뷔후 첫 홈런을 허용하며 흔들렸지만 그게 전부였다.

2회부터 류현진은 안정감을 찾으며 이닝을 거듭할수록 점점 더 위력적인 피칭을 거듭했다. 타순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가 돈 다음에도 피츠버그 타자들은 좀처럼 류현진의 공에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다. 최고 시속 150㎞를 찍은 직구의 힘과 능수능란한 변화구에 밀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괴물’의 본능을 되살린 류현진은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와 원투펀치를 이루기에 손색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아울러 다저스의 치열한 선발투수 경쟁에서도 성큼성큼 전진했다.

현재 다저스의 선발진을 보면 1선발 커쇼(2승)가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류현진과 잭 그레인키(평균자책점 0.00)가 1승씩을 거두고 있다. 반면 시범경기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조시 베켓은 류현진에 이어 3선발로 등판해 1패에 평균자책점 4.50에 그치고 있다.

류현진은 치열한 다저스 선발투수 경쟁에서 자신의 입지를 결정할 이날 경기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선발 로테이션에서 입지를 굳건히 함은 물론 3~4선발 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류현진이 총 8명의 선발 후보가 경합한 다저스 선발투수 경쟁에서 시즌 초반 2선발 자리를 꿰찬 것은 시범경기 호투도 작용했지만 그보다는 다른 경쟁자들이 개막을 앞두고 부상으로 하나둘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류현진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에서 높은 순위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메이저리그 첫 승리를 따낸 류현진은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홈런만 안 맞으면 100점 만점인데 홈런 맞아서 80점만 주겠다. 홈런 맞은게 오히려 약이 돼서 더 잘 던질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내 스타일대로 던지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 매팅리(52) 감독은 류현진의 첫 승리에 관해 “와우”라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류현진이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는 기자의 말에 매팅리 감독은 “‘마침내’가 아니라 두 경기 만에 따낸 승리”라며 류현진이 성공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순천 효천고 5연승 ‘휘파람’

고교야구 주말리그

순천 효천고가 고교야구 주말리그 5연승에 성공했다.

효천고는 지난 7일 익산 야구장에서 열린 신생팀 정읍 인상고와의 주말리그 전라권 경기에서 13-1, 5회 콜드게임승을 거뒀다.

4회 4개의 볼넷과 투수의 송구 실책을 더해 손쉽게 6점을 뽑아낸 효천고는 박계범·박희주·차명진으로 이어지는 막강 투수진을 내세워 5번째 승리를 챙겼다.

새 사령탑의 대결로 눈길을 끈 동성고와 진흥고의 경기는 승부치기 끝에 6-2 동성고의 승리로 끝났다.

1-1에서 들어간 10회 승부치기에서 동성고는 정규홍의 내야 안타에 이어 이태훈과 김태선의 연속 2루타가 나오면서 승기를 잡았다. 동성고 김홍빈은 10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군산상고는 6회 대거 4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을 발휘하며 전주고를 7회, 9-2 콜드승으로 꺾었다. 한편 대구 상원고의 투수 이수민은 경상권 대구고와의 경기에서 10회까지 26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며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세웠다.

앞선 기록은 2006년 대통령기에서 진흥고 투수였던 정영일이 세운 23개(13.2이닝)다. 프로 최다는 KIA 선동열 감독이 해태시절인 1991년 13이닝동안 작성한 18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